

사설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

평화번영과 조국통일로 향한 우리 겨레의 힘찬 진군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주체108(2019)년 신년사는 지금 북과 남, 해외 온 민족의 가슴가슴을 무한한 환희와 격동으로 뉘뉘게 하고있다.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미증유의 사변들로 출렁이 장식한 지난해의 귀중한 성과들에 토대하여 새해 2019년에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아직은 첫걸음에 불과하지만 북과 남이 뜻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불신과 대결의 최극단에 놓여있던 북남관계를 신뢰와 화해의 관개로 확고히 돌려세우고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경이적인 성과들이 짧은 기간에 이룩된데 대하여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한다 하고 시면서 새해 우리 겨레가 조국통일투쟁에서 들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밝혀주시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2018년은

70여년의 민족분렬사상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격동적인 해였다.

한해동안에 무려 세차례에 걸치는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여기에서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 발표되어 온 겨레를 통일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부풀게 하였다.

조선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이는 평화시대를 열어놓으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담아 채택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북남사이 에 무력에 의한 동족상쟁을 종식시킬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서 참으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지난해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우리 겨레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제23차 겨울철울림경기대회와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북과 남의 선수들이 통일을 위해 달려가며 공동입장하고 여러 종목에서 무어진 북남단일팀들이 경기에서 우승하여 통일을 높이기 위한 가슴 뭉클한 화목들이 펼쳐졌다.

북과 남의 예술인들이 평양과

서울을 오고가며 민족적화해와 통일열기를 뜨겁게 고조시켰으며 9월평양공동선언에 지적된 대로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대관계종식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들도 진행되었다.

북과 남은 여러가지 장애와 난관을 과감하게 극복하면서 철도, 도로, 산림, 보건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들을 추진하여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디었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북남고위급회담합의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개설되어 자기 사업을 시작하였다.

지난 한해동안 북남관계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 나간다면 조선반도를 강자 땅으로 건설할 수 있다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수 있다는 확신을 온 겨레에게 안겨주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지난해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기치높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토대로 하여 뜻깊은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한다.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밝혀주시는 이 구호는 올해 조국통일운동에서 높이 들고나가야 할 투쟁의 기치이다.

북남사이의 군사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대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대관계해소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전역으로 이어놓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지난해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기치높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토대로 하여 뜻깊은 올해에

세와의 합동군사연습들을 더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 정전협정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과감히 전개해나가야 한다.

온 겨레는 조선반도평화의 주인이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을 안고 일치단결하여 이 땅의 평화를 파괴하고 군사적긴장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저지관사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고 온 겨레가 북남관계개선의 덕을 실지하게 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당면하여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싶어하는 남측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에 개방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하시었다.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거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어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게 될 것이다.

현시기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리익에 북중시킴으로써 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사나. 북남관계문제는 철두철미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다. 우리 민족은 비록 외세에 의해 분열되어있지만 한강토에서 하나의 피줄을 이어온 단일민족으로서 다같이 조국통일에 대한 념원을 간직하고 있다.

조국통일에 사활적인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것도 우리 민족이며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는것도 우리 민족이다. 조국통일을 절절히 바라고 있는 우리 민족끼리 마음과 힘을 합쳐야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갈수 있다.

북남관계문제를 놓고 외세의 비위를 맞추려 하고 그의 지지를 받아 문제를 해결해보려 하는것

은 실로 어리석은 처사이다. 격동적인 사변들로 가득찼던 지난해의 조국통일운동사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이 아무리 악랄해도 북남관계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능히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실증 해주었다.

북과 남은 조국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관심과 열망이 전례없이 높아지고있는 오늘의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

통일애국의 숨결로 높이고 우리 민족끼리의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의지가 뜨겁게 맥박치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는 온 겨레를 거룩적인 통일애국투쟁으로 부르짖었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북남선언들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군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올해를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력사적인 해로 뉘내이는데 누구나 투색있는 기여를 하여야 한다.

조국소식

운산메기공장 훌륭히 개건

평양북도에서 운산메기공장을 훌륭히 개건하였다.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공장에는 종이 및 알갱이, 새끼고기호동, 야외비육통, 박막식비육호동, 과학기술보급실과 종합조성실 등이 그쯘하게 갖추어져있다.

인민생활문제를 제일중대사로 내세우고있는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도에서는 메기공장을 자체의 힘으로

개건할 목표에 설계 및 시공력량을 편성하고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실행시켜 공사기간이 단축되어 추진되도록 하였다.

인민들의 식량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데 기여할 일념으로 운산, 철산군에서 달려나온 돌격대원들은 모든 건축물들을 먼후날에 가서도 손색없이 완공하기 위해 공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면서 매일 공사과제를 넘쳐수행하였다.

련관단위들에서는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하였으며 운산군을 비롯한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물심양면의 지원으로 완공을 앞당기는데 기여하였다.

일군들과 근로자들, 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적극적인 지원에 의하여 메기공장이 훌륭히 개건됨으로써 도안의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또 하나의 물질적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새해 첫날 전력생산계획수행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높뛰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새해 첫 전투에 진입하였다.

전력문제해결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인민경제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나갈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뜻을 받들고 이곳 전력생산자들은 드세한 돌격전을 벌려 련합기업소적인 첫날 전력생산계획을 완수하였다.

일군들은 들끓는 현장에서 생산자들의 가슴마다에 신년사의 사상을 깊이 새겨주고 그들의 창조열의를 더욱 분출시키기 위한 화신식경제선동과 직강별,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을 활기있게 전개하며 생산에서 제기

되는 문제들을 전투적으로 풀어나갔다.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과업의 하나가 전력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이라는것을 자각한 열성인 1, 2직장의 로동자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면서 연료소비기준을 낮추고 보일러의 열효율을 최대한 높여 많은 전기를 라빈직장에 보내주었다.

운관직장, 하차직장에서는 석탄부림설비와 콘베이어에 만가동을 걸어 석탄보장을 책임적으로 하였으며 전기직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에서든 련대적혁신을 일으켰다.

사회주의대고조전투쟁들에 더 많은 전력을 생산보장할 일념으로

고 라빈직장의 로동자들이 주파수에 따르는 증가압력을 잘 타산한데 기초하여 라빈운전을 과학기술적으로 함으로써 라빈발전기효율을 부쩍 끌어올리었다.

중산열기로 뚫어버리는 현장에서 벌어진 국립교연단, 국립민족예술단 예술인들과 만경대, 평천, 중구역 나맹민들의 화신식경제선동은 새해 첫 전투에 진입한 이곳 로동자, 기술자들의 생산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력경쟁의 기치높이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전기를 보내주기 위해 본사기자를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여러 나라에서 일제히 보도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해 주제 108(2019)년을 맞으며 하신 신년사를 1일 여러 나라에서 일제히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김정은원수님께서 1월 1일 신년사에서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것은 자신의 확고한 의지라고 하시었다 하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2019년에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었다.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이께서는 정전협정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또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시었다.

인디아—아시아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2019년에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었다.

이외의 합동군사연습을 더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라고 하시면서 그이께서는 정전협정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또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시었다.

인디아—아시아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2019년에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었다.

이외의 합동군사연습을 더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중국의 환구망, 해외망, 국제방송망, 인디아신문들인 《힌두스탄 타임스》, 《힌두》, 《타임스 오브 인디아》, 《스페이츠맨》, ANI통신, NDTV방송, 지 뉴스TV 방송, 이란의 프레스TV방송, 파르스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도쿄신문》,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요신문》, 《마이니케신문》, 프랑스의 AFP통신, 영국의 BBC방송, 도이칠란트의 데페아통신, 미국의 블룸버그통신과 신문 《워싱턴 포스트》,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체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수없이 부득불 우리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하시었다.

본사기자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밝혀주시는 바와 같이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고 온 겨레가 북남관계개선의 덕을 실지로 볼수 있게 하여야 한다.

북남협력사업은 어느 일방을 위한것이 아니라 민족공동의 리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지난해 북남사이에는 여러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 접촉과 교류가 활성화되고 온 겨레를 기쁘게 하는 민족공동의 소중한 열매들이 마련되었다.

북과 남사이에서 여러차례의 북남고위급회담들이 진행되고 여러가지 장애와 난관을 과감하게 극복하면서 철도, 도로, 산림, 보건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들을 추진하여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을 내디디었다. 지난해 9월에는 개성공업지구에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개설되었다.

그러나 한편 북남사이에는 끊어진 민족의 맥을 하나로 잇고 화해와 통일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벌어져 겨레를 기쁘게 하였다.

북과 남의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

의 슬기와 힘을 떨칠 때 예술인들은 평양과 서울을 오고가며 민족적화해와 통일열기를 뜨겁게 고조시켰다.

군사분야에서도 북과 남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그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군사분야리해합의서》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리행하기 위해 판문점공동경비구역과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시켜 나가고있다.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는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진행되고 북남의 통일행사들도 펼쳐져 화해와 통일의 분위기를 드높였다.

평양에서 진행된 10.4선언발표 11돛기념 민족통일대회를 비롯한 북남공동행사장들에서는 북과 남의 참가자들이 서로의 손을 뜨겁게 맞잡고 평화번영과 통일로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자고 굳게 약속하였다.

외세의 간섭과 반동일사대대국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에 대해서도 활발히 진행된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사업들은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힘있게 추동하였으며

북과 남사이에는 끊어진 민족의 맥을 하나로 잇고 화해와 통일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벌어져 겨레를 기쁘게 하였다.

북과 남의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

양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조선반도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가 열린 오늘 남조선에서도 북남협력사업에 대한 열의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지난해 11월 남조선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공동으로 《남북경협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저장장치를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북을 주목하고있다》, 《남북경협협력의 명산 금강산에서는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진행되고 북남의 통일행사들도 펼쳐져 화해와 통일의 분위기를 드높였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것》이라는 목소리를 울려나왔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당면하여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싶어하는 남측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천명하시었다. 이것은 뜨거운 민족애의 표현이고 화해와 협력, 북남관계발전을 더욱 추동하려는 공화국의 의지를 보여주시었다.

이에 남조선의 북남협력관련기업들도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펴며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갈 때 민족자주통일의 그날도 앞당겨질 것이다.

리어금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 올해 첫 출산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절 세 위 인 과 평 화 번 영 의 시 대

조선에서 세해 2019년은 경애하는 김정일최고령도자님의 신년사로 맞이하였다.

은 겨레와 세인이 지켜보는 역사적인 신년사에서 또다시 북남 관계의 밝은 로정도를 제시해주시고 모두의 가슴마다에 평화번영과 통일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더 깊이 심어주신 최고령도자님 이시다.

이남의 언론들을 비롯한 전세계의 신문, 방송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의 신년사를 알음다음이 보도하고있는 지금 중국에서 사는 우리 동포들도 뜻깊은 이해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해 새해초부터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고계시는 절세의 위인을 모신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긍심을 저마다 토로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께서는

희망의 밝은 빛을 준 신년사

지난 2017년의 마지막밤을 행성의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위기의 마음안고 보냈다. 조선반도정세의 시계바늘이 바야흐로 전쟁이 터질수 있는 극한으로 치달아오르고있었던것이다

미국신문 《비즈니스 인사이더》 12월 21일부는 미국이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위협천만한 《코퍼트드리기》 작전방안을 작성한 사실을 공개하였다. 미북군은 이슬람 무인기군 병사들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가하였던 군인들로 교체하는데 착수하였던 일본에서 《자위대》가 조선반도의 군사충돌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모의시범을 진행하였다.

미국가리엔센터 국방연구국장 해리 카지아니스는 《2018년에 미국과 북이 싸움을 시작해 수백만명이 죽을수 있다.》, 《이 전쟁이 핵전쟁으로 비화하면 지난 수십년사이에 우리가 지켜왔던 전쟁과는 완전히 다를것》이라고 말하였다.

미국이 돌린 전쟁시계는 이제 멈춰세울수 없는것으로 여기고 모두가 불안의 시선을 조선반도에서 보내고있었다.

그러나 밝아온 2018년의 첫 아침에 세인의 우려는 기대로, 불안은 격동과 설렘으로 바뀌게 되었다.

새해에 겨레모두에게 희망의 밝은 빛을 준것은 평양에서 울려 퍼진 김정일최고령도자님의 신년사였다. 위성중계와 전파를 타고 이남과 행성의 곳곳에 울려 퍼진 그분의 따뜻한 음성들이 새겨졌다.

《우리는 민족적대사를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도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야 합니다.

역사적인 신년사에서 지난해는 70여년의 민족분열사상 일제적이었던 적이 없었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격동적인 해였다고 뜻깊은 지난 한해를 궁지높이 축하화사하였다.

2018년의 극적인 변화와 격동의 사변들은 위인을 모시여 조선반도에서 이루어진 특기할 변화이고 사변들이다.

밝아온 새해의 아침에 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의 웅대한 통일구상과 대범한 결단, 뜨거운 민족애, 신걸지명의 예지에 의하여 지난 2018년에 조선반도를 둘러싸고 펼쳐졌던 충격과 환희의 사변들이 이 글에 담아보고자 한다.

희망의 밝은 빛을 준 신년사

《...》

《...》 그것은 불미스러운 동족대결 상태를 끝장내고 북남관계개선의 새 역사를 남긴다는 획기적인 화해와 평화의 매제지였다. 불신과 적대도 풍광 얼어든 마음들을 녹여주는 따뜻한 겨레사랑의 신년사였다.

적대의 총구가 여전히 북을 겨누고 제재와 위협이 최절정으로 치달던 그때 이런 파격적인 제안이 울려나오게 모두가 놀라움

《북남간의 새로운 국면시작을 알리는 긍정적신호》, 《벽한 제안》, 《새해 좋은 소식으로 열게 됩니다. 김정일위원장님 말씀입니다.》, 《김정은위원장님 말씀입니다.》, 《북의 신년사가 통일의 무지개 다리를 놓았다.》...

신년사를 접한 이남의 각계층 인사들과 주민들이 터진 충격과 고마움의 인사는 지난해의 1월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민족화해와 단합의 불길은 어떻게 타올랐는가

올림픽은 순수한 국제체육축전이지만 정치가 개입되어 불미스러운 폐지를 남긴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국제체육발전과 나라를사이에 평화, 친선에 이바지해야 할 올림픽이 나치의 선전무대로 된적도 있었고 동서전쟁의 희생물이 되어 《반쪽짜리 올림픽》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고상한 올림픽이 레오의 살인무대가 되고 국가간, 민족간 알력과 분쟁을 더욱 조장시킨 아픈 나날도 있었다.

지난해 2월 평창에서 열린 제 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도 분렬된 조국의 한쪽에서, 전쟁의 도화선이 각각 각 타들어가는 시점에서 벌어지는것으로 하여 대회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많은 이들의 깊은 우려와 위기를 자아내었다.

과연 성공한 올림픽이 될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안고 준비하던 올림픽은 긴장과 대결의 조선반도에 민족화해의 불길 을 지피고 전쟁시계를 평화시계로 돌린 《평화올림픽》으로 역사에 자랑스레 기록되게 되었다.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화해와 희망의 불씨를 안고간것은 김정일최고령도자님께서 파견해주신 북의 대규모사절단들이었다. 최고령도자님께서 예술단의 편성과 곡목선정, 가수들의 연기형상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판문점의 봄을 안아온 거룩한 발걸음

판문점은 세인이 다 아는 유명한 곳이다.

조선반도의 분단선 한복판에 자리잡고 세월의 오가는 바람을 다 맞으면서도 진정한 봄을 몰랐던 판문점이었다. 오랜 세월, 사시정철 대결과 긴장의 얼음만이 두텁게 깔려있던 판문점에 봄이 오고 어느덧 비무장화추진으

로 조진반도평화의 상징으로 되었다.

지난해의 꽃피던 4월, 김정일최고령도자님께서 분렬사상 처음으로 판문점분리선을 넘어 남측 《평화의 집》으로 나가신 그 시각 그처럼 고대해온 판문점의 봄, 민족의 새봄은 그분의 발걸음에 실려 꿈같이, 기적

판문점의 봄을 안아온 거룩한 발걸음

같이 찾아왔다.

력사의 그날 최고령도자님께서 마중나온 문재인대통령과 뜨겁게 손을 잡으시고 판문점분리선의 북과 남을 자유로이 넘나드신 것은 의사가 만든 분단장벽이 북남의 뭉친 힘에 의해 이제 어떻게 통폐하 무너지게 되는가를 수 천수만마디의 말보다 더 생동히, 가슴찌릿하게 보여준 판문점수뇌상봉의 불멸의 화폭이었다.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 김정은 2018. 4. 27》

《평화의 집》방명록의 뜻깊은 친필이 말해주듯 위험천만한 판문점에 나오시여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성사시키고 민족의 새 역사창조를 위한 장엄한 출발의 신호총성을 울려주신 최고령도자님 이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군사분계선표 말이 지척에서 보이는 판문점 《도보다리》를 산책하시고 담화도 나누시는 뜻깊은 장면은 대결과 긴장의 한복판인 판문점에서

조미관계의 새 역사를 개척한 세기적만남

2018년 6월 12일, 세계의 모든 눈과 귀는 역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조미수뇌상봉에 쏠렸다. 이것을 방종하듯 싱가포르의 곳곳에는 수천명의 내외신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운집하여 역사에 길이 남을 이날의 순간순간을 주시하고있었다.

싱가포르의 현지시간으로 오전 9시 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 미합중국의 트럼프대통령을 만나시려 호텔사이에 있는 카펠라호텔의 회담장에 들어서시었다. 그 순간은 말 그대로 어둠을 가져주는 해돋이순간과도 같았다. 지구상 가장 적대적인 두 나라사이의 오랜 어둠을 밀어내던 역사의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최고령도자님께서 트럼프대통령과 손을 맞잡으신것은 《꺾지만 거대한 약속》, 《세기의 약속》로 력사의 길이 새겨지게 되었다.

최고령도자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와닿는 과정이 결코 험하지 않았다고, 과거의 역사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지만 그 모든것을 과감하게 짓밟고 이렇게 이 자리에까지 왔으며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자 트럼프대통령은 엄지손가락을 주켜올리었다.

위풍당당하게 미합중국의 대통령과 단독회담, 확대회담을 하시고 함께 산책도 하시며 친교를 두터이하시시는 그분의 모습을 뵈오며 누구나 격정과 매혹의 감정을 터치했다.

역사적인 공동성명을 서명하시는 자리에서 최고령도자님께서

풍요한 평양의 가을을 안아오시여

겨레의 마음을 싱그럽게 해주며 흘러간 지난해의 가을은 역사적인 9월평양상봉과 더불어 민족사에 길이 전해질 사변적인 가을로 되었다.

맑고푸른 평양의 가을하늘아래서 북남수뇌분들이 역사적인 상

부러 화해와 평화의 새 역사를 쓰고 머지않아 판문점의 작은 오솔길을 자주통일의 대동로로 되게 하시려는 그분의 응지와 확고부동한 의지를 보여주는것으로서 온 세상의 감동을 자아내었다.

지금 우리 겨레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기치로 높이 추켜들고 있는 민족적대결의 구절마다에도 최고령도자님의 자주신념이 빛날치고 민족단합의 정류과 정신이 어려있어 잃어볼수록 가슴이 후터워지고 민족의 레일에 대한 환희의 감정에 휩싸이곤 하는 우리 해외동포들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최고령도자님께서 4.27북남수뇌상봉이 있는 지 불과 20일만에 또다시 력사의 땅 판문점에 나오시여 문재인대통령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심으로 새 격식과 판례를 초월하여 북남의 수뇌분들이 아무때나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수뇌상봉의 새로운 전형을 창조하시고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흐름을 더욱 힘있게 추동해주시었다.

세계가 비은 김정일최고령도자님의 모습은 그대로 태양의 광휘로 온 모습이었다.

세계가 비은 김정일최고령도자님의 모습은 그대로 태양의 광휘로 온 모습이었다.

예지로 빛나는 안광, 불날처럼 마스한 미소, 바다처럼 넓고 대륙처럼 확 트인 호방한 성격, 해를 짝이순간과도 같았다. 지구상 가장 적대적인 두 나라사이의 오랜 어둠을 밀어내던 역사의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최고령도자님께서 트럼프대통령과 손을 맞잡으신것은 《꺾지만 거대한 약속》, 《세기의 약속》로 력사의 길이 새겨지게 되었다.

최고령도자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와닿는 과정이 결코 험하지 않았다고, 과거의 역사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지만 그 모든것을 과감하게 짓밟고 이렇게 이 자리에까지 왔으며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자 트럼프대통령은 엄지손가락을 주켜올리었다.

위풍당당하게 미합중국의 대통령과 단독회담, 확대회담을 하시고 함께 산책도 하시며 친교를 두터이하시시는 그분의 모습을 뵈오며 누구나 격정과 매혹의 감정을 터치했다.

역사적인 공동성명을 서명하시는 자리에서 최고령도자님께서

세계가 비은 김정일최고령도자님의 모습은 그대로 태양의 광휘로 온 모습이었다.

세계는 중대변 변화를 목격하게 된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 해외동포사회의 환희와 격동도 절정에 달하였다.

은 세계가 파도처럼 설레었다. 지구촌의 전과는 그분의 비범독출한 위인상을 전하는 뉴스로 가득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위인상은 그대도 태양의 광휘로 온 모습이었다.

김정은위원장님은 50시간동안의 싱가포르체류기간 전세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현대외교사의 거물급정치인으로, 세계각국의 정상들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수 있는 합리적이고 세련된 지도자로 부상하였다. 《2018년 세계정치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지도자》이라고 평한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동서의 그 어디에, 고금의 그 언제 최고령도자님처럼 인종과 국적, 사상과 계층을 넘어 온 겨레, 온 인류를 순간에 매혹시키고 끌어당긴 위인이 있었던가.

6월의 폭양과 더불어 싱가포르에서 일어난 《김정은열풍》은 2018년을 뜨겁게 달구었다.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이야말로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뛰어난 정치외교능력과 위인상을 세계가 실감케 한 거대한 외교총적 이었다.

세계가 비은 김정일최고령도자님의 모습은 그대로 태양의 광휘로 온 모습이었다.

세계가 비은 김정일최고령도자님의 모습은 그대로 태양의 광휘로 온 모습이었다.

김정은위원장님은 50시간동안의 싱가포르체류기간 전세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현대외교사의 거물급정치인으로, 세계각국의 정상들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수 있는 합리적이고 세련된 지도자로 부상하였다. 《2018년 세계정치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지도자》이라고 평한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동서의 그 어디에, 고금의 그 언제 최고령도자님처럼 인종과 국적, 사상과 계층을 넘어 온 겨레, 온 인류를 순간에 매혹시키고 끌어당긴 위인이 있었던가.

6월의 폭양과 더불어 싱가포르에서 일어난 《김정은열풍》은 2018년을 뜨겁게 달구었다.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이야말로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뛰어난 정치외교능력과 위인상을 세계가 실감케 한 거대한 외교총적 이었다.

수개월전, 문재인대통령을 최대의 국민으로 성대하게 맞이하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이라고, 좋은 결실이 꽃피고 좋은 열매를 수확하는 가을에 평양에 오면 성대하게 연회를 준비하여 맞이하겠다는 그날의 약속을 잊지 않았고 뜻깊은 9월에 평양상봉을 마련해주시고 문재인대통령에게 크나큰 환대를 베풀어주신 최고령도자님 이시다.

몸소 비행장에 마중나가시고 성대한 환영의 꽃물결도 펼쳐주시었으며 숙소에까지 친히 안내 해주시는 그분의 인자하신 모습을 뵈오며 온 남녘, 온 겨레가 깊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최고령도자님께서 9월 평양상봉의 나날 문재인대통령내외와 그의 함께 시간을 보내시었다. 뜻깊은 환영예술품연도 같이 보아주시고 성대한 연회도 마련해주셨으며 유명한 옥류관과 특색있는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에서 오찬과 만찬도 함께 하여주시었다. 이처럼 진한 혈육애, 민족애를 어디서 또 찾아볼수 있겠는가. 마치 한가족이 오레간만에

세계가 비은 김정일최고령도자님의 모습은 그대로 태양의 광휘로 온 모습이었다.

세계가 비은 김정일최고령도자님의 모습은 그대로 태양의 광휘로 온 모습이었다.

김정은위원장님은 50시간동안의 싱가포르체류기간 전세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현대외교사의 거물급정치인으로, 세계각국의 정상들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수 있는 합리적이고 세련된 지도자로 부상하였다. 《2018년 세계정치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지도자》이라고 평한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동서의 그 어디에, 고금의 그 언제 최고령도자님처럼 인종과 국적, 사상과 계층을 넘어 온 겨레, 온 인류를 순간에 매혹시키고 끌어당긴 위인이 있었던가.

6월의 폭양과 더불어 싱가포르에서 일어난 《김정은열풍》은 2018년을 뜨겁게 달구었다.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이야말로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뛰어난 정치외교능력과 위인상을 세계가 실감케 한 거대한 외교총적 이었다.

세계가 비은 김정일최고령도자님의 모습은 그대로 태양의 광휘로 온 모습이었다.

세계가 비은 김정일최고령도자님의 모습은 그대로 태양의 광휘로 온 모습이었다.

김정은위원장님은 50시간동안의 싱가포르체류기간 전세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현대외교사의 거물급정치인으로, 세계각국의 정상들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수 있는 합리적이고 세련된 지도자로 부상하였다. 《2018년 세계정치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지도자》이라고 평한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동서의 그 어디에, 고금의 그 언제 최고령도자님처럼 인종과 국적, 사상과 계층을 넘어 온 겨레, 온 인류를 순간에 매혹시키고 끌어당긴 위인이 있었던가.

6월의 폭양과 더불어 싱가포르에서 일어난 《김정은열풍》은 2018년을 뜨겁게 달구었다.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이야말로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뛰어난 정치외교능력과 위인상을 세계가 실감케 한 거대한 외교총적 이었다.

세계가 비은 김정일최고령도자님의 모습은 그대로 태양의 광휘로 온 모습이었다.

세계가 비은 김정일최고령도자님의 모습은 그대로 태양의 광휘로 온 모습이었다.

김정은위원장님은 50시간동안의 싱가포르체류기간 전세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현대외교사의 거물급정치인으로, 세계각국의 정상들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수 있는 합리적이고 세련된 지도자로 부상하였다. 《2018년 세계정치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지도자》이라고 평한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동서의 그 어디에, 고금의 그 언제 최고령도자님처럼 인종과 국적, 사상과 계층을 넘어 온 겨레, 온 인류를 순간에 매혹시키고 끌어당긴 위인이 있었던가.

6월의 폭양과 더불어 싱가포르에서 일어난 《김정은열풍》은 2018년을 뜨겁게 달구었다.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이야말로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뛰어난 정치외교능력과 위인상을 세계가 실감케 한 거대한 외교총적 이었다.

만나 다정히 이야기를 하며 뜻과 정을 나누는것 같은 뜨거운 동포애의 생동한 귀감이었고 감격의 화폭이었다.

문재인대통령을 위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황홀한 무대를 펼쳐주시고 10여만명의 평양시민들 앞에서 연설도 하도록 배려해주셨으니 그 넓으신 도량과 따뜻한 인정을 무슨 말로 다 칭송하랴.

4.27선언이 그리하듯 력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의 뜻깊은 조항들과 자자구구에도 민족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풀어나가며 민족의 밝은 미래를 하루빨리 안아오시려는 최고령도자님의 확고한 의지와 대범한 구상, 통 큰 결단, 넓은 포용력과 뜨거운 민족애가 절절 스며들어있다.

이남의 인터넷들에는 《김정은위원장님 (한)반도를 하나로 만들고있다.》, 《김정은위원장님의 사려깊은 배려에 감동을 금할수 없다.》 등으로 최고령도자님의 위인상을 칭송하고 9월평양공동선언을 지지환영하는 글들이 대대적으로 울렸다.

2018년의 평양의 가을은 온 겨레에게 기쁨과 환희를 더해주고 평화번영을 향한 민족의 발걸음을 더욱 힘있게 떠밀어준 잊지 못할 가을이었다.

세계가 비은 김정일최고령도자님의 모습은 그대로 태양의 광휘로 온 모습이었다.

세계가 비은 김정일최고령도자님의 모습은 그대로 태양의 광휘로 온 모습이었다.

김정은위원장님은 50시간동안의 싱가포르체류기간 전세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현대외교사의 거물급정치인으로, 세계각국의 정상들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수 있는 합리적이고 세련된 지도자로 부상하였다. 《2018년 세계정치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지도자》이라고 평한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동서의 그 어디에, 고금의 그 언제 최고령도자님처럼 인종과 국적, 사상과 계층을 넘어 온 겨레, 온 인류를 순간에 매혹시키고 끌어당긴 위인이 있었던가.

6월의 폭양과 더불어 싱가포르에서 일어난 《김정은열풍》은 2018년을 뜨겁게 달구었다.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이야말로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뛰어난 정치외교능력과 위인상을 세계가 실감케 한 거대한 외교총적 이었다.

세계가 비은 김정일최고령도자님의 모습은 그대로 태양의 광휘로 온 모습이었다.

세계가 비은 김정일최고령도자님의 모습은 그대로 태양의 광휘로 온 모습이었다.

김정은위원장님은 50시간동안의 싱가포르체류기간 전세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현대외교사의 거물급정치인으로, 세계각국의 정상들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수 있는 합리적이고 세련된 지도자로 부상하였다. 《2018년 세계정치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지도자》이라고 평한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동서의 그 어디에, 고금의 그 언제 최고령도자님처럼 인종과 국적, 사상과 계층을 넘어 온 겨레, 온 인류를 순간에 매혹시키고 끌어당긴 위인이 있었던가.

6월의 폭양과 더불어 싱가포르에서 일어난 《김정은열풍》은 2018년을 뜨겁게 달구었다.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이야말로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뛰어난 정치외교능력과 위인상을 세계가 실감케 한 거대한 외교총적 이었다.

세계가 비은 김정일최고령도자님의 모습은 그대로 태양의 광휘로 온 모습이었다.

세계가 비은 김정일최고령도자님의 모습은 그대로 태양의 광휘로 온 모습이었다.

김정은위원장님은 50시간동안의 싱가포르체류기간 전세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현대외교사의 거물급정치인으로, 세계각국의 정상들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수 있는 합리적이고 세련된 지도자로 부상하였다. 《2018년 세계정치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지도자》이라고 평한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동서의 그 어디에, 고금의 그 언제 최고령도자님처럼 인종과 국적, 사상과 계층을 넘어 온 겨레, 온 인류를 순간에 매혹시키고 끌어당긴 위인이 있었던가.

6월의 폭양과 더불어 싱가포르에서 일어난 《김정은열풍》은 2018년을 뜨겁게 달구었다.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이야말로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뛰어난 정치외교능력과 위인상을 세계가 실감케 한 거대한 외교총적 이었다.

세계가 비은 김정일최고령도자님의 모습은 그대로 태양의 광휘로 온 모습이었다.

김정은위원장님은 50시간동안의 싱가포르체류기간 전세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현대외교사의 거물급정치인으로, 세계각국의 정상들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수 있는 합리적이고 세련된 지도자로 부상하였다. 《2018년 세계정치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지도자》이라고 평한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동서의 그 어디에, 고금의 그 언제 최고령도자님처럼 인종과 국적, 사상과 계층을 넘어 온 겨레, 온 인류를 순간에 매혹시키고 끌어당긴 위인이 있었던가.

6월의 폭양과 더불어 싱가포르에서 일어난 《김정은열풍》은 2018년을 뜨겁게 달구었다.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이야말로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뛰어난 정치외교능력과 위인상을 세계가 실감케 한 거대한 외교총적 이었다.

세계가 비은 김정일최고령도자님의 모습은 그대로 태양의 광휘로 온 모습이었다.

세계가 비은 김정일최고령도자님의 모습은 그대로 태양의 광휘로 온 모습이었다.

김정은위원장님은 50시간동안의 싱가포르체류기간 전세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현대외교사의 거물급정치인으로, 세계각국의 정상들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수 있는 합리적이고 세련된 지도자로 부상하였다. 《2018년 세계정치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지도자》이라고 평한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동서의 그 어디에, 고금의 그 언제 최고령도자님처럼 인종과 국적, 사상과 계층을 넘어 온 겨레, 온 인류를 순간에 매혹시키고 끌어당긴 위인이 있었던가.

6월의 폭양과 더불어 싱가포르에서 일어난 《김정은열풍》은 2018년을 뜨겁게 달구었다.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이야말로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뛰어난 정치외교능력과 위인상을 세계가 실감케 한 거대한 외교총적 이었다.

세계가 비은 김정일최고령도자님의 모습은 그대로 태양의 광휘로 온 모습이었다.

세계가 비은 김정일최고령도자님의 모습은 그대로 태양의 광휘로 온 모습이었다.

김정은위원장님은 50시간동안의 싱가포르체류기간 전세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현대외교사의 거물급정치인으로, 세계각국의 정상들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수 있는 합리적이고 세련된 지도자로 부상하였다. 《2018년 세계정치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지도자》이라고 평한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동서의 그 어디에, 고금의 그 언제 최고령도자님처럼 인종과 국적, 사상과 계층을 넘어 온 겨레, 온 인류를 순간에 매혹시키고 끌어당긴 위인이 있었던가.

6월의 폭양과 더불어 싱가포르에서 일어난 《김정은열풍》은 2018년을 뜨겁게 달구었다.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이야말로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뛰어난 정치외교능력과 위인상을 세계가 실감케 한 거대한 외교총적 이었다.

세계가 비은 김정일최고령도자님의 모습은 그대로 태양의 광휘로 온 모습이었다.

세계가 비은 김정일최고령도자님의 모습은 그대로 태양의 광휘로 온 모습이었다.

김정은위원장님은 50시간동안의 싱가포르체류기간 전세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현대외교사의 거물급정치인으로, 세계각국의 정상들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수 있는 합리적이고 세련된 지도자로 부상하였다. 《2018년 세계정치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지도자》이라고 평한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동서의 그 어디에, 고금의 그 언제 최고령도자님처럼 인종과 국적, 사상과 계층을 넘어 온 겨레, 온 인류를 순간에 매혹시키고 끌어당긴 위인이 있었던가.

6월의 폭양과 더불어 싱가포르에서 일어난 《김정은열풍》은 2018년을 뜨겁게 달구었다.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이야말로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뛰어난 정치외교능력과 위인상을 세계가 실감케 한 거대한 외교총적 이었다.



재중동포 김순경

《북남사이의 군사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려는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김정은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해 주제 108(2019)년을 맞아 신년사를 발표하신것과 관련하여 이를 높이 격찬하는 남조선의 정치계와 언론들, 각계층의 목소리가 세계에 울려나오고 있다.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가 매우 세련되고 특색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면서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일제히 대변인명령을 통해 김정은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 《북남 군사분야합의서》를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 규정하셨다고 하면서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북남관계개선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밝힌 점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높이 격찬하였다.

한편 남조선인터넷에는 《통

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무력충돌방지를 위한 항시적인 연계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북과 남이 평화변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조선반도정세긴장의 근원으로 되고있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것이 공화국의 드립없는 립장이다.

돌이켜보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공화국을 겨논 군사적소동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평화가 엄중히 위협당한다는 한두번이 아니었다. 지나온 날들이 보여주듯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정세를 격화시키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과 전쟁장비반입이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

신년사에는 정전협정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장태를 실질적으로 마련할데 대한 문제도 밝혀져있다.

통일위업수행에서 보다 큰 전진을

뜻깊은 새해 2019년의 첫 아침 절세위인의 신년사에서 접하고보니 격동된 마음을 금할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해 주제 108(2019)년을 맞아 신년사를 발표하신것과 관련하여 이를 높이 격찬하는 남조선의 정치계와 언론들, 각계층의 목소리가 세계에 울려나오고 있다.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가 매우 세련되고 특색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면서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일제히 대변인명령을 통해 김정은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 《북남 군사분야합의서》를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 규정하셨다고 하면서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북남관계개선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밝힌 점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높이 격찬하였다.

한편 남조선인터넷에는 《통



민족의 앞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

밝아온 새해의 아침과 더불어 절세위인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에서 지구전역을 진감하며 울려 퍼졌다.

지금 온 겨레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 드높은 열의에 충만되어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해 주제 108(2019)년을 맞아 신년사를 발표하신것과 관련하여 이를 높이 격찬하는 남조선의 정치계와 언론들, 각계층의 목소리가 세계에 울려나오고 있다.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가 매우 세련되고 특색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면서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일제히 대변인명령을 통해 김정은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 《북남 군사분야합의서》를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 규정하셨다고 하면서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북남관계개선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밝힌 점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높이 격찬하였다.

한편 남조선인터넷에는 《통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남조선 각계 각층이 높이 격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해 주제 108(2019)년을 맞아 신년사를 발표하신것과 관련하여 이를 높이 격찬하는 남조선의 정치계와 언론들, 각계층의 목소리가 세계에 울려나오고 있다.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가 매우 세련되고 특색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면서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일제히 대변인명령을 통해 김정은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 《북남 군사분야합의서》를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 규정하셨다고 하면서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북남관계개선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밝힌 점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높이 격찬하였다.

한편 남조선인터넷에는 《통

이 크고 대범한 김정은위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정은위원장의 진심이 돋보이는 신년사입니다.》, 《(한) 반도에 영원한 평화가 오기를 바랍니다.》, 《올해에도 남북평화 기원합니다.》, 《2019년에 보다 더 확실히 나아가십시오. 평화와 번영으로...》, 《서로 대항하면서 금강산도 가고 백두산도 가면서 평화롭게 삽시다.》, 《평화라는 말만 나오면 발광하는 보수꼴통들 새해에는 완전히 박멸되기

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부디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조국통일 합시다.》 등 절세위인에 대한 애목과 격정의 마음,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담은 글들이 대대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승고한 애국애족의 정이 차넘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적극 지지환영하는 각계층의 목소리는 앞으로 더욱 고조될것이라고 언론들은 평하고있다.

북남관계는 조미관계의 부속물로 될수 없다

격동의 2018년이 대망의 2019년으로 개주봉을 넘겼다.

희망찬 새해의 언덕에서 총적과 환희, 기쁨과 감격, 사랑과 안락이 울려 퍼지는 지난 한해를 뒤돌아보는 우리 겨레의 마음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역사적인 새해신년사에서 접하여 북남관계의 보다 획기적인 전진과 통일을 바라는 열망으로 활활산나갈 났고있다.

그러나 민족의 드높은 기대와 열망과는 달리 워싱턴정가에서는 의연히 《북남관계가 조미관계보다 앞서나가는 안된다.》, 《북남관계는 조미비핵화협상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속도조절타령이 계속 울려나와 온 겨레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미국의 이러한 립장과 태도가 우리 민족의 화합과 발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있는지, 그 후과가 어떤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보여준 현상이 있었다.

알려진것처럼 지난해말 개성에서는 북남철도, 도로연결 및 현대화착공식이 진행되었다. 긴긴 세월 갈라져 사하는 첫길은, 깊은 세월 갈라져 사하는 겨레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가셔주기 위한 의미있는 행사가 아닐수 없었다.

문제로 되는데는 그것이 형식만 갖춘 반복적 착공식으로 될수밖에 없었다는것이다.

행성의 그 어둠을 둘러싸고 착공식을 벌려놓고 이제 곧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선포하는 레는 찾아보기 힘들것이다.

이번 착공식에서 남측관계자들은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실질적인 착공과 준공으로 나아갈수 있다.》, 《이번 착공식은 철도연결을 위한 상징적인 첫 조치이다.》, 《비핵화문제가 전진하기 전에 남북관계개선이 속도를 내는데 대한 미국의 불만이 더욱 커질수 있기때문에 앞으로 실제적인 공사는 많은 산을 넘어야 할것이다.》고 구구한 설명을 달았다.

착공식이면 착공식이 실질적인 착공이 아니라하는것은 무엇이고 당사자들이 모여 공사를 시작하자고 선포하면 그만이지 누구의 승인이 있어야 실질 공사를 시작할수 있다는것은 또 무

엇인가.

참으로 외세가 강요한 또 하나의 비극이 아닐수 없다.

지금도 착공식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들을 토로하고있다. 남쪽일각에서는 《착공없는 착공식》, 《회한한 착공식》이라는 쓴소리까지 울려나오고있다.

북과 남이 어떤 우여곡절 끝에 이번 착공식을 벌리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알고있는 대다수 사람들은 이야말로 현 북남관계의 속도라고 하면서 이 하나를 놓고서도 북남관계를 대하는 미국의 태도를 알수 있다고 말하고있다.

우연한 말이 아니다.

북남관계와 조미관계의 정치지형을 바꾼 조선반도의 거대한 지각변동과 함께 지난 한해동안 북과 남 사이에 상호 합의 없었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지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따져놓고 보면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없고 소리는 요란한데 실체는 없다는 격으로 거의 답보와 침체상태에 놓인것이 바로 북남관계이다.

북남사내외분들의 강렬한 평화변영의지와 현실적인 노력에 의해 세차례의 수뇌상봉과 두차례의 선언을 통해 북과 남이 관계개선의 획기적전진을 확인하였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많은 합의들이 합의를 위한 합의로 그치고 실질적인 리행에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다.

의심할바없이 그 원인은 말로는 판문점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협의를 환영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웨쳐대고는 실제상 북남관계개선에 차단을 내리우고 각방으로 제동을 걸어온 미국에 있다.

미국은 온 한해동안 북남관계가 너무 앞서나간다고 악정을 들고고 눈을 부라리면서 그 무슨 속도조절론을 줄곧 제창하여왔다.

심지어 남조선의 장관들을 워싱턴에 불러들여 《긴밀한 협력유지》 약속을 받아낸다. 미국우성과 미중양정보국의 대조선정책관제자들을 서울에 급파하여 남조선이 미국의 《승인》없이 독자적으로 북남관계개선에 나서지 못하도록 침을 놓는다 하며 분주함을 피우

보다 앞선다고 하면서 우리 민족공동의 선언을 로골적으로 비난해나왔다.

2015년 8월사태이후 북남고위급급 접촉에서 공동보도문이 채택되었을 때에는 또 어찌했는가. 북을 먼저 밀라고 침을 놓고 《10월도발설》까지 내뿜으면서 미국은 시종일관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아나왔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현 《정전》이 출범하였을 때 극도의 불안을 느낀 미국은 또다시 서울에 대고 서둘러 북남관계개선에 나서지 말라고 침을 놓으며 야단법석했다. 그러다가 우리의 주동적인 조지와 성의있는 노력으로 북남사이에서 극적인 화해국면이 조성되자 내외여론의 눈이 두려워 《북남대화를 100% 지지한다.》고 나서며 피우고는 돌아앉아 《북핵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북남관계개선은 의미가 없다.》, 《대북압박공조를 허물어뜨리는것은 옹당할수 없다.》고 강짜를 부리고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북남관계의 극적 발전에서 탄력을 받아 역사적인 조미수뇌상봉이 이루어졌다는것은 세계가 공인하고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에서의 《세계적인 만남》, 조미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언출한 미국이 속도조절을 운운하며 북남관계를 가로막는것은 세인이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문제이다.

북남관계가 대대적 열마나 전진했다고 조미관계에 맞추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것인가.

남조선의 한 정세전문가가 평한것처럼 북남관계가 이제 겨우 첫걸음을 떼며 불과하다면 조미관계는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시점에서 한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한것이 현실이다.

사실이 이러할진대 북남관계가 조미관계보다 앞서면 안된다고 하는것은 결국 저도 안하고 남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민일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한 마라손 선수가 미국선수로 앞섰다고 하여 속도를 조절하라고 강요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것 같은가. 대변에 미친놈의 수작이라는 질타가 쏟아질것이다.

바로 그러한 강도적론리를 지금 미국이 펴고있다.

하다면 미국이 왜 이런 몰상식한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것이다.

원인은 다름이 있지 않다.

현원은 예나 지금이나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기때문이다.

현실은 미국이 저들의 전략적리익을 쫓아 조미대화마당에 나섰으나 우리와의 좋은 관계, 새로운 관계구축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핵을 빼앗고 굴복시키자는 흉심만 짙 차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한 사고의 출발지거처는 북남이 관계개선과 통일으로 접근할수록 미국은 점차 조선반도문제에서 발을 빼지 않을수 없다는 위구심, 그렇게 되면 미국의 대아시아배전략의 근간이 흔들릴수밖에 없다는 라산이 깔려있다.

북남관계가 조미관계보다 앞서나가는 안된다는 속도조절론은 본질에 있어서 북남관계가 급격히 개선되어가고있는 오늘 미국이 새롭게 들고나온 대조선적대시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녹아날것 우리 민족밖에 없다. 북남관계가 계속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희생물로만 남는다면 우리 민족은 언제 분별의 아픔을 가지고 끊어진 민족의 핏줄을 이으며 평화와 번영을 이룩해나가겠는가.

외세의 강요에 따라 북남관계가 조미관계의 부속물처럼 다루어진다면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는 언제 실현되고 민족의 숙원인 통일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는것이다.

지금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들은 저저마다 자국중심의 리해관계 실현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나가고있다. 이러한 때 우리 민족이 무엇보다 중시해야 할것은 민족의 귀중한 리익과 요구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이 눈치, 저 눈치를 다 보며 주춤거리고 뒤돌아볼 때가 아니라 더욱 파감히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가속으로 달려야 할시각이다. 우리가 손잡고 달려나갈 때 조미관계도 따라오게 되어있다는것은 지난해가 보여준 경험이고 교훈이었다.

석정연 (《로동신문》에서 전제)

싱가포르에서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새해를 맞으며 평양에서 울려 퍼진 신년사의 전파가 세계를 격동과 흥분으로 들끓게 하고 있다. 신년사를 통해 공화국은 지난해에 있던 력사적인 첫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이던 조미관계를 극적으로 전환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면서 6.12조미공동성명에서 천명한대로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두 나라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아가려는 것은 공화국의 불변한 립장이라는 것을 밝히었다.

지난해에 공화국은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가지 실천적조치들을 취하였다. 공화국의 중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실천적행동으로 화답해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는 보다 더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훌륭하고도 빠른 속도로 진전하게 될것이다. 공화국은 조미 두 나라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계속 고집하며 떠안고 갈 의사가 없으며 하루빨리 과거를 매듭짓고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계수립을 향해 나아가갈 용의가 있다는 립장을 천명하였다.

지난해 급속히 진전된 북남관계현실이 보여주듯이 일단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할 일이 없다. 대화상대방이 서로의 고질적인 주장에서 대범하게 벗어나 호상인

정하고 존중하는 원칙에서 공정한 제안을 내놓고 올바른 협상 자세와 문제해결의지를 가지고 립한다면 반드시 조미 두 나라사이가 서로에게 유익한 종착점에 가닿게 될것이다. 조미 두 나라 사이에 훌륭한 결실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 세계인론계가 년말년시를 맞으며 일치하게 력사적인 조미수뇌회담을 《2018년 최고뉴스》로 크게 떠든 사실만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얼마전 미 의회전문잡지 《더 힐》은 《2018년 주요 뉴스》와 관련한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2018년에 미국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주요사건들 가운데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단연 《2018년의 최고뉴스》,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기의 모든 미국인론들은 6월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 이후에도 미국에서 중대한 사변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미국인들속에서 최고의 뉴스로 꼽힌 것은 상당히 놀랍다.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이 《최고뉴스》로 꼽힌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평하였다. 중국의 《인민일보》와 《환구시보》를 비롯한 각종 언론들도 《2018년의 국제10대뉴스》를 전하면서 조미수뇌회담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함께 그 력사적 의의를 부각시켰으며 남조선 언론들은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을 《2018년의 세계10대뉴스》 가운데서 제일 첫번째 순위로 발표하였다. 이것은 조미사이의 적대관계청산과 세계평화에 대한 미국인들과 국제사회의 기대와 열망이 얼마나 강렬한가

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조미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6개월이 된 지금도 조미협상이 융당한 진척을 보지 못하고있는 것은 미국이 싱가포르수뇌회담에서 합의된 동시행동원칙을 무시하고 《선비핵화, 후제재완화》를 고집하면서 한발자욱도 움직이지 않고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조건의 인내심을 오관하면서 의연히 대조선 제재와 압박에 매여달린다면 공화국은 신년사에서 천명한 것처럼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것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조미관계개선을 원한다면 싱가포르에서의 초심으로 돌아가 조미공동성명을 성실히 리행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경제난을 라게하기 위한 기회

남조선에서 경제위기가 가시질 줄 모르면서 새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내에서 《2018년 최악, 최저지표들만 풍년》, 《백일하에 드러난 수족구대형 경제의 취약성》, 《교호참사와 분배쇼크, 투자인사상 등으로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 있다. 따지고보면 원 남조선의 경제위기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게 되어있는 경제의 구조적 모순, 미국이 이식한 대외의존형 경제의 취약성이 가져다준 것이다. 올해에 미국이 강행한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금리인상, 증미무역전쟁으로 인한 대외 경제환경악화로 남조선의 금융시장이 불안상태에 빠지고 수출규모가 줄어드는바람에 대외무역의존도가 70% 이상에 달하는 남조선 경제는 많은 타격을 받게 되었다. 남조선언론들이 경제성장률이 대폭 떨어지는 등 경제침체현상이 더욱 우심해졌으며 수출로 먹고사는 《수출한국》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개탄하고있는 것은 우연하지 않다.

오늘 남조선경제의 위기는 지난 9년간 리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의 반인민적인 정책과 부패무능에도 많이 기인된다. 이른바 《경제대통령》,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민생대통령이 될것이라고 목청을 높이며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 리명박, 박근혜는 친 재벌정책과 반인민적정책을 실시하여 남조선경제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다. 특히 리명박, 박근혜당은 극악한 동족대결정책을 강행하여 금강산관광중단, 개성공업지구폐쇄 등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사업을 전면차단함으로써 남조선경제의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많은 기업인들과 각계중추인들의 생계난을 가중시켰다. 실제로 리명박, 박근혜보수패당이 그 누구의 《돈줄》을 끊겠다고 강행한 개성공업지구의 가동중단행동으로 124개의 남조선인주기업들을 포함하여 6 000개에 달하는 련관기업들이 파산되어 12만 4 000여명의 로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되었다. 금강산관광중단으로 이를 주도해온 남조선의 현대아산은 수많은 재정적손실을 입고있으며 금강산기업인협의회에 소속되어있는 수십개의 기업들의 피해액도 나날이 불어나고 있다. 남조선강원도 고성군만 하여도 관광객이 줄어들고 수백개의 숙박시설이 폐업한 것을 비롯하여 군경제가 통째로 망했다. 2015년 남조선 《국회》 립법조사처가 발표한 《2015국경감사정책자료》에 의하면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뒤 남조선강원도 지역이 입은 피해액은 무려

28억 4 000만US\$에 달했다고 한다. 그동안 남조선의 현 《정부》는 보수패당에 의해 이처럼 엉망진창이 된 경제를 추켜세우고 소수의 가진자들만 배를 불리는 사회적악패를 청산하여 절대다수 근로자들과 사회적약자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나름대로 애를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패당은 저들의 죄악에 대한 반성은 꼬물꼬물 없이 헌 집권당국에 경제위기의 책임을 들씌우는데만 피눈이 되어 돌아가고 있다. 죄를 따진다면 마땅히 리명박, 박근혜역도와 그 공범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당부터 민심의 심판대에 올려야 마땅하다. 현실은 민심의 대변자는 민주개혁세력이지 결코 보수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남조선에서 경제위기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속에 대외언론이 이례의 첫 아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하시었다. 이것은 절제위인의 열의같은 민족애, 동포애의 숭고한 발현이다.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은 악화된 대외경제적환경으로 볼 때 경제의 회복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출로는 아직 북남경제협력밖에 없다. 북남경제협력의 활성화는 《섬나라》와 다름없는 남조선의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될것이라고 저마다 분석평가하고 있다.

조순영

자주적결단과 실천으로 민족의 미래를 열어나가야

적대와 대결의 장막을 걷어내며 북남관계에서 세계를 놀래게 기적적인 사변들이 연발적으로 일어난 지난 한해를 격정속에 되새겨보는 우리 겨레는 지금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안고 밝아온 새해의 아침을 맞이하였다. 지난해는 70여년의 민족분열사상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격동적인 해였다.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한해동안 세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우리 민족의 앞길에는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 평화변영의 새로운 리정표가 마련되었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채택 이후 북남사이에는 철도, 도로, 산림, 보건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무접촉이 이루어지고 민족의 화해

와 단합, 평화변영에 이바지하는 경이적인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북남사이 대화와 접촉, 대양의 문이 열리고 북남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10.4선언발표 11돐 기념 민족통일대회, 북남통일통조끼, 북남로동자동맹총대회 등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지난해 북남사이에서 이룩된 귀중한 성과들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기치높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이룩한 소중한 열매이다. 것처럼 짧은 기간에 세계를 경탄시키는 경이적인 성과들이 연속이룩된것은 북남관계사에 일찌기 없었던 일로서 누구나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 모든것은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에 대한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북남공동의 성실한 노력이 안아온 결실이다. 적대와 대결에로 치달던

북남관계가 획기적으로 전환되고 놀라운 변화와 성과들이 이룩된것은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도 두렵지 않으며 북남관계개선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능히 풀어나갈수 있는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민족적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에 대한 겨레의 기대와 열망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있는 오늘날의 현실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끼리 결정한다는 든든한 배짱을 지니고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분열자체가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것이 아니라 통일이 70년이 넘도록 실현되지 못하고있는 것은 중요하게 외세의 필요하고 끈질긴 방해책동에 기인된다. 동족보다 외세를 더 믿고 자기 민족이 아니라

세와 공조하게 되면 민족내부에 불신과 갈등밖에 생기게 없고 그렇게 되면 북남관계는 없게 되고 개성될수 없다.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리에에 복종시키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반도문제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고 말로만 웨칠 때는 지나갔다. 북과 남은 내외반일세력의 책동이 아무리 악랄해도 민족자주의 립장에 확고히 서서 이미 채택발표된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해나가야 한다. 북남관계발전을 악랄하게 가로막아나서는 남조선의 반역패당이 무서워 민족사적대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는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동족대결과 여당협박기로 언명해가는 버러지들의 언

동에 개되지 말고 민족화해와 평화변영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열망을 따라야 한다.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거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변영의 활로를 열어나갈수 있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게 될것이다. 오직 과감한 자주적결단과 실천만이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수 있다.

신기복

최근 남조선의 《자유한국당》내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장악을 위한 계파싸움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때 《당혁신》을 위한 《계파청산》을 떠들던 《자유한국당》패들이 전당대회가 다가오자 또다시 당권장악야심을 드러내면서 서로마 저들의 비위에 맞는 인물들을 내세우려고 계파싸움을 일삼고있는 것이다. 지금 친박근혜파는 전 원내대표 정우택, 《국회》의원 김진태에게 당대표후보로 출마할것을 권고하는 한편 전 《국무총리》 황교안을 끌어들이 자들의 《구심점》으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비박근혜파는 전 서울시장 오세훈, 전 경성남도지사 김태호를 당권경쟁에 뛰어들게 하는 등 분주함을 피우고 있다. 한편 당지도부구성방식을 둘러싸고 친박근혜파는 《집단적지도체제》를, 비박근혜파는 《단일성지도체제》를 각기 고집하고있으며 다름은 보수야당들과의 통합문제를 놓고서도 자들의 리해관계를 내세우며 서로 아웅

다웅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민심의 지향과 요구는 안중에도 없이 정치적야욕을 실현하는데에만 눈이 빨개 돌아치면서 저들끼리 퍼터지는 계파싸움을 일삼는 추악한 정치성정배정단이라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독사는 열백번 허물을 벗어도 독사인것처럼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아무리 《쇄신》과 《당혁신》을 떠들어대도 그 추악한 본색이

장관시절 그는 정보원선거개입사건과 정유희 《국정》개입사건을 비롯하여 남조선정국을 뒤튼들고 박근혜를 궁지에 몰아치면서 저들끼리 퍼터지는 계파싸움을 일삼는 추악한 정치성정배정단이라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독사는 열백번 허물을 벗어도 독사인것처럼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아무리 《쇄신》과 《당혁신》을 떠들어대도 그 추악한 본색이

최근 남조선에서는 《정권》의 통치위기가 심각하다. 《지지불이 계속 떨어져 《메이크로스》(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현상)가 발생하였다. 《청와대 직원들의 비리와 기강해이로 《메인업》(통치력마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여론들이 나돌고 있다. 《자유한국당》패거리들과 극우보수언론들이 내세우고있는 이러한 여론을 두고 대다수의 남조선사람들과 전문가들은 당국에 대한 이러한 평가가 《심히 과장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남조선의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와 민생의 위기가 발생하고있는것이 남조선경제의 심각한 구조적모순과 취약성, 리명박, 박근혜집권시 비수패당이 강행추진한 반인민적경제정책과 부패무능이 빚어낸 후과라고 진단

하고 있다. 남조선의 《국회》에서도 《리명박, 박근혜 《정권》 9년간 미배에 대한 산업정책이 없었다.》, 《친기업정책을 폈는데 기업들이 해로로 나갔다. 기업에 대한 특혜와 지원으로 체질이 약화되었다.》라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 있다. 경제문제연구소들에서는 《지난 《정부》가 주요 산업구조조정, 자영업경쟁력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점이 현재의 고용부진상황을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청와대 일부 직원들속에서 나타난 비리와 기강해이를 두고서도 남조선의 여론은 《《정권》의 통치력마비까지 불리울 친인척 및 측근부정부패는 아니

있는것은 결국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이 그것을 고의적으로 부각시켜 저들의 더러운 정치적목적에 악용하고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남조선민심의 평가이다. 남조선사회에 류토포되고있는 《《정권》의 통치위기가 심각》이라는것이 보수패당이 저들이 처한 위기수습과 재집권을 위해 의도적으로 확산시키는 비렬한 여론조작책동이라는것이 점점 불보듯 명백해지고 있는 것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의 이러한 추태에 침을 뱉으면서 보수패력자들이 내몰리는 말을 《공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안믿겠다.》고 야유조소하고 있다. 본사기자 김철민

말을 하던 초기조직확보 등에 두며 조미협상의 당면목표는 핵동결을 기본으로 하는 비핵화로, 장기목표는 북조선의 최종적이고 총분히 걸출된 비핵화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제재압박소동의 명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발사로 부터 《핵전과》로 바꾸었는가 하면 2018년에 제재압박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제재와 압박은 중요한 지레대로 계속 남을것이라고 하면서 《선비핵화, 후제재완화》를 대조선협상전략으로 조악하게 내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인론들은 2차북미수뇌회담을 앞두고 북비핵화조치들을 구체적으로 련기할것이지 주목된다. 《북핵위협론》의 근거를 《핵전과》로 바꾼것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발

화를 향한 초기조직확보 등에 두며 조미협상의 당면목표는 핵동결을 기본으로 하는 비핵화로, 장기목표는 북조선의 최종적이고 총분히 걸출된 비핵화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제재압박소동의 명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발사로 부터 《핵전과》로 바꾸었는가 하면 2018년에 제재압박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제재와 압박은 중요한 지레대로 계속 남을것이라고 하면서 《선비핵화, 후제재완화》를 대조선협상전략으로 조악하게 내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인론들은 2차북미수뇌회담을 앞두고 북비핵화조치들을 구체적으로 련기할것이지 주목된다. 《북핵위협론》의 근거를 《핵전과》로 바꾼것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발

사를 중단한 현 상황의 불만을 반영한것으로 된다. 북의 제재완화요구는 물론 남 북관계개선과 《대북제재》완화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작성한 합동전략보고서라는것이 조미 두 나라가 세계에 약속한 적대관계청산의 목표와 배치될뿐 아니라 지난날의 구태와 편견이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낡은 타령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그대로 실증해준다. 지금 조미협상은 교착상태에 처해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출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성의있는 노력에 미 국이 상응조치로 화답해나서는 데 있다. 이미 알려진것처럼 공화국은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것이라는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북부핵실험장소를 폐기하는 것과 같은 실천적조치들을 취해왔다. 그런데 미국은 제 할바는 하지 않고 버리고앉아 공화국을 더 많은 조치를 취하고 계속 압박적으로 생떼를 쓰고 있다. 공화국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발사를 중지하지도 한 해가 지난것만큼 그를 걸고 취했던 부당한 모든 조치들을 해제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조선반도주변국 나라들이 공화국에 대한 부당한 제재는 철회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국이 그동안 제재압박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핵 및 미사일위협》이 내외로부터 얼마나 지탄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 무슨 《핵전과》

민심의 저주와 버림을 받은 자들을 자기 패거리의 두목으로 내세워 당권을 쥐어보려는 《자유한국당》것들은 어느 계파할것이지 정치는 고사하고 초보적인 인간의 체모도 갖추지 못한 시정배정단이다. 썩은 고기에 히에나들이 달라붙듯 당권이라는 뼈다귀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으르렁거리는 자들에게 《정의로운 정치》, 《의로운 정책》을 바라다는것은 뿌리없는 나무에서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런 자들이 당국의 민간인사찰의혹이라는것을 계속 걸고있는것은 여론의 이목을 떠돌이로 돌려 구도의 정치적위기에 서 벗어나보려는 유치한 광대국에 불과하다. 조물민심의 준엄한 심판만을 위한 《자유한국당》에서 그 누가 대표자리에 올라앉든, 어느 파가 지도부를 장악하든 이미 기울어진 난파선과 같은 운명을 건질수 없다. 서로 당권을 차지하겠다고 싸움으로 해를 보내고 싸움으로 해를 보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남 녀민심은 침을 뱉고 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남조선단체 성노예범죄를 외면하는 일본당국을 규탄



최근 남조선의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련대가 서울에서 집회를 가지고 성노예범죄를 외면하는 일본당국을 규탄하였다. 발언자들은 《화해, 치유, 재단》의 해산이 발표되고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지만 일본당국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일본정부는 과거전쟁범죄를 인정하고 공식사죄와 배상을 통한 법적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참가자들은 《일본정부는 성노예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끝까지 받아낼 의지를 표명하였다.》

최근 남조선의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련대가 서울에서 집회를 가지고 성노예범죄를 외면하는 일본당국을 규탄하였다. 발언자들은 《화해, 치유, 재단》의 해산이 발표되고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지만 일본당국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일본정부는 과거전쟁범죄를 인정하고 공식사죄와 배상을 통한 법적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참가자들은 《일본정부는 성노예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끝까지 받아낼 의지를 표명하였다.》

최근 남조선의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련대가 서울에서 집회를 가지고 성노예범죄를 외면하는 일본당국을 규탄하였다. 발언자들은 《화해, 치유, 재단》의 해산이 발표되고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지만 일본당국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일본정부는 과거전쟁범죄를 인정하고 공식사죄와 배상을 통한 법적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참가자들은 《일본정부는 성노예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끝까지 받아낼 의지를 표명하였다.》

최근 남조선의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련대가 서울에서 집회를 가지고 성노예범죄를 외면하는 일본당국을 규탄하였다. 발언자들은 《화해, 치유, 재단》의 해산이 발표되고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지만 일본당국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일본정부는 과거전쟁범죄를 인정하고 공식사죄와 배상을 통한 법적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참가자들은 《일본정부는 성노예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끝까지 받아낼 의지를 표명하였다.》

최근 남조선의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련대가 서울에서 집회를 가지고 성노예범죄를 외면하는 일본당국을 규탄하였다. 발언자들은 《화해, 치유, 재단》의 해산이 발표되고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지만 일본당국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일본정부는 과거전쟁범죄를 인정하고 공식사죄와 배상을 통한 법적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참가자들은 《일본정부는 성노예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끝까지 받아낼 의지를 표명하였다.》

최근 남조선의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련대가 서울에서 집회를 가지고 성노예범죄를 외면하는 일본당국을 규탄하였다. 발언자들은 《화해, 치유, 재단》의 해산이 발표되고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지만 일본당국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일본정부는 과거전쟁범죄를 인정하고 공식사죄와 배상을 통한 법적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참가자들은 《일본정부는 성노예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끝까지 받아낼 의지를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김용철

새해의 진군길에 넘쳐나는 승리의 신심과 락관



공화국인들이 새해의 힘찬 진군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출근길에 오면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어디 가나 새로운 위훈창조로 불려일으키는 경제선동의 북소리, 노래소리가 높이 울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자력갱생의 변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건설의 전진에서 혁명적양상을 일어나야 한다고 하시었다.

우리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업무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고있는 가운데, 전력, 석탄, 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새해정초부터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사회주의협동법에서도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절명하기 위한 새해영농준비를 다그치고있다.

한겨울의 추위속에서 낮과 밤

이 따로 없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삼지연군건설장과 원산결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서 전제하고있는것도 새로운 혁신의 소식들이다.

지금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온 나라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승리의 신심과 락관이 차넘치고있다.

그 신심과 락관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리키는 길은 곧 승리와 영광의 길이며 그 길에서 뚝지 못할 난관도 시험도 없다는 굳은 믿음과 확신을 오는것이다.

인민사랑의 뜨거운 정이 넘쳐나고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는 그의 신년사에서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얻고 새해에도 보다 큰 승리를 안아오려는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는 공화국인민들이다.

세계의 커다란 관심속에 공화국창건 70돐을 맞으며 성대히 진행될 열병식 및 군중시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죽》 등은 자기 령도자에 대한 공화국인민의 신뢰와 흠모심이 얼마나 높고 강렬한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었다.

지난해 대외관계분야에서 이룩된 극적인 사변들을 통하여 공화국인민들은 탁월한 정치실력으로 세계정치를 주도해나가는 절세위인이 계시어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위용이 더 높이 떨쳐지고있음을 누구나 가슴뜨겁게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만 따르던 우리는 이긴다는 인민의 절대적인 믿음은 새해 진군의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해주었다.

지금 이 땅에 용솨솨치는 신심과 락관은 인민들의 가슴마다 새겨진 자기의것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도 있다.

자력갱생은 오직 자기 힘을 믿고 자기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이 땅위에 부강하고 번영하는 강국을 일떠세우려는 공화국인민들

의 고유한 사상정신적기질로 되고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수많은 성과물들은 그 어느것이나 할것없이 과학기술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력갱생의 창조대전으로 마련된 값진것들이다.

지난해 첫 헌지지도의 자욱을 국가과학원에 새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과학자들의 두뇌에서 나는 창조물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이곳은 자력자강의 보물고, 국가과학원은 자력자강의 고향집이라고 사랑과 정을 담아 말씀하시었다.

새로 개건된 평양무제도전차공장을 찾았을 때에도 그이께서는 공장을 산업시설같이 나게 꾸린데 만족하지 말고 전반적인 생산공정의 현대화, 자동화, 흐름선화를 더욱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힘과 용기를 안겨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날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평양무제도전차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공장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하고 나라의 력계운수부문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구축해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뿐이다. 제 힘을 믿고 완강히 돌진해 나갈 때 막혀있던 문도 열리고 승리의 돌파구도 마련된다는것이 창조와 승리의 력사만을 기록해 온 공화국의 인민들이 새해의 이 아침에 더욱 가다듬는 신념이요 의지이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새해의 첫 발걸음을 기운차게 댄 공화국은 2019년에도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게 될것이다.

제함의로로 많은 승리를 쫓아

멋들어진 새형의 궤도전차가 설공경으로 단장된 아름다운 평양의 거리를 달리고 있다. 시내의 풍치도 더 좋아지고 새형의 궤도전차를 리용하는 손님이들 누구나 좋아하고있다. 우리는 산뜻한 외형은 물론이고 내부도 현대적으로 꾸러진 새형의 궤도전차를 생산하고있는 수도 력계운수부 부서수리공장을 찾았다.

우리와 만난 김승문공장장은 지난해에 새형의 궤도전차를 새로 제작하기 위한 사업을 다그쳐 대중교통수단문제를 원만히 풀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고 말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공장에서 궤도전차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작성하고 그에 맞게 생산과 지휘를 짜고들었다고 한다. 바퀴와 주름편결부, 유리, 후사경, 바닥구판, 수직장식판, 의자 등 기계 및 전기부품들과 의장품들을 만들어본 경험이 부족하였지만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았다.

하여 지난해 8월 제작과 운영원가가 적게 드는 교류전동기를 설치하고 전동기조속변환기와 조속프로그램을 연구도입하여 차의 기동과 속도, 제동특성을 개선하고 손님들의 편의를 도모할수 있게 제작된 새형의 궤도전차를 경애하는 원수님께 보여드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시운전을 지도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만든 궤도전차와 무제도전차들이 거리를 누비며 달릴 때에는 멋있을것이라고, 인민들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기뻐하시었다.

목표이 쏟아지는 무더위속에서도 대중교통수단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해 그토록 마을쓰시는 그의 뜨거운 열정에 고무된 공장의 일꾼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은 보다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처음에 비해 제동변과 마찰편제동장치, 의장품들의 질이 개선된 궤도전차들을 만들어 내놓았다.

공장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는 현대화된 궤도전차생산에서 기본을 담당한 궤도전차수리직장으로 향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새해인사를 높이 받들고 최대한의 열정을 발휘하여 용접, 조립을 비롯한 궤도전차 제작과정에 부딪치는 기술적문제들을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있다는 김영남직장장의 말에서 우리는 궤도전차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남모르게 바쳐가는 그들의 수고를 엿볼수 있었다.

조기직장, 종합직장, 재판직장을 비롯하여 곳곳마다에서 우리는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하는 자력갱생의 창조본태를 지니고 성년이래선된 새형의 궤도전차들을 새해에 더 많이 생산할 열의에 넘쳐있는 공장의 기술자, 종업원들의 모습을 목격할수 있었다.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는 새형의 궤도전차들이 시래로 생성 달리는 모습을 그려보며 우리는 공장을 나섰다.

본사기자 현은경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지닌 인재들로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투자에 힘입고있는 공화국에서 중등일반교육부에서 모든 학생들을 완성된 중등일반지식과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한 쓸모있는 인재로 키울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완비해나가고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시기에 이어 올해에도 해당 지역의 경제지리적특성에 따라 교육을 여러가지 형태로 실속있게 진행해나가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이미 조직된 기술고급중학교들은 학생들이 해당 부문의 기초기술지식과 기능을 높은 수준에서 소유하도록 교육하기 위해 조직된 중등교육기관이다.

기술고급중학교들에서는 일반교육내용을 취급하면서 금속, 석탄, 전력, 화학, 농산, 수산, 축산, 파수부문과 같은 기술교육을 진행하고있다.

우리와 만난 강일 교육위원회 보통교육국 교장은 나라의 여러 곳에 기술고급중학교들이 세워졌다고 하면서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생산현장에 나가 실지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을 더 많이 배워주자는데 기술고급중학교를 내은 목적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농산부문기술을 가르치는 장천기술고급중학교와 석탄부문기술을 배워주는 강동군 흑룡기술고급중학교, 파수부문기술을 가르치는 삼척구역 원흥기술고급중학교를 비롯하여 이미전에 설립된 기술고급중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기술고급중학교들에서는 기술활동초보와 경제생활을 비롯하여 앞으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체면하게 될 일반적인 경제생활분야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과목으로부터 시작하여 금속생산기, 전기생산기술과 같이 해당 분야의 기술을 가르치고있다.

학생들은 우와 같은 내용들을 배우는 과정에 노동활동에 필요한 기초기술지식을 습득하고 기술고급중학교를 졸업하게 된다고 한다.

우리는 자식들을 기술고급중학교에서 공부시키고있는 학부모들도 만나보았다.

강동군에서 살고있는 리비녀녀는 아들이 기술고급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면서 고급중학교시절에 앞으로 사회에 나가 써먹을수 있는 기술을 배우게 되니 정말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부모로서 아들이 어릴적부터 꿈꾸던 직업에 활용할수 있는 기술을 배울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였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된 공화국에서는 이렇듯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인 조치들을 련이어 취하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앞날의 조선을 떠메고나갈 쓸모있는 역군으로 준비하도록 하고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세계적인 교육발전추세와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을 혁신하여 사회계발전을 떠메고나갈 인재들을 질적으로 키워내기 위하여 중등일반교육을 비롯한 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본사기자 강류성

새해명절날 풍지수려한 대동강반에 살고있는 문춘호로인의 집은 이른 아침부터 문두드리는 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뚝, 뚝, 뚝...》

문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열침이며 아래집, 옷집 등에서 사람들이 문춘호, 장성숙로인을 찾아와 《새해에 건강하여 오래 오래 앉아계십시오.》라고 세배를 하는가 하면 한때 문춘호로인과 함께 일하던 기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선배에 대한 의리를 지켜 달려이며 그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들고 찾아와 즐겁게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다.

방금전에는 인민반장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수산물상점에 물 좋은 생선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한구럭지 되게 사다가 안겨주었다. 그런가 하면 설맞이공연관람을 함께 가자며 문을 두드리는 사람, 명절날 옥류관에 가서 유명한 평양평면을

들자며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좋은 소식을 안고오느구나.》

이러며 문춘호로인이 얼굴의 주름살이 퍼이도록 환하게 웃

가 의사생활을 방안으로 이끌며 미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문춘호로인에게 김옥별의 사는 혈압상태가 어떤가고, 요즘 아버님의 혈압이 올라 마음에 놓이지 않아 찾아왔다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명절날이 아닌 평범한 날에도 때때로 문을 두드리며 건강을 세심히 관심해주고 품어 마련한 귀한 보약들도 안겨주는 나날에 이제는 한집안식구처럼 가까워진 진료소의 의료일꾼들이었다.

공화국에는 진료소를 비롯한 병원들이 모든 주민지구에 빠짐없이 설립되어있는 사람들이 일정한 주민지구를 담당하고 정기적으로 매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필요한 의료상방조를 주고있다.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 돌봐주는것은 공화국에서 볼수 있는 특이한 풍경이다. 결국 매 주민이 자기의 담당사를 가지고있는 셈이다. 그런 특혜를 받으면서도 치료비, 왕진비, 진찰비격정이 없다.

《아버님, 혈압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추운새라, 계절이 바뀔새라 늘 살뜰히 돌봐주고 있는데 내 어찌 건강하지 않겠소. 명절날인데 노래 한곡 부르라오?》

이렇게 말하며 문춘호로인은 흥이 나서 목을 땀다.

... 로동당의 언덕으로 황혼기도 청춘이니 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 마을 늙을소나 ...

《세월은 참 좋은 세월이다. 세금독촉, 학비독촉 각종 빚독촉으로 문두드리는 소리가 사람들에게 근심과 불평을 더해주는 소리로 되고있는 세상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는 문두드리는 소리가 그대로 사람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안겨주는 소리로 되고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고마운 이 제도를 위해 새해에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로인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뚝, 뚝, 뚝》 하는 소리가 정답게 울려다. 또 무슨 소식을 안고 문을 두드릴까. 모두의 눈길은 약속이나 한듯이 문가로 향하였다.

본사기자 흥범식

문두드리는 소리



과학기술열풍을 더욱 세차게

* 김룡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서기장과 나는 대담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고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일꾼들은 뜻깊은 올해에 과학기술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달라는 열의에 넘쳐있다. 새해를 맞으며 기자는 김룡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서기장을 만났다.

그리고 여러 학회, 협회들에서 과학기술활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는 한편 생산단위들과 과학연구기관들사이의 협동을 강화하고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정상화에서 나오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도록 조지사업을 짜고들어 성과를 거두었다.

조선기술총련맹협회와 조선주체철학회에서 합리적인 주제철학산정력확장방안선정을 위한 학술토론회를 진행하여 인민경제의 철학재수요를 보장하고 금속공업의 주제화를 실현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을뿐 아니라 전국화장품부문 학술토론회, 《은실남새부문 과학기술토론회-2018》, 료전기재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 해결방도를 위한 과학기술현상모집 및 학술토론회들을 다양하게 진행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의 연소모형주조기술강습 및 보여주기사업, 덕천지구관련합기업소 탄광부조공장의 알루미늄세멘트생산기술에 대한 기술방조 등 제33차 전국과학기술총련맹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제안들을 널리 도입,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여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밖에 여러 도(직할시) 과학기술위원회들에서도 도과학기술전시관들을 과학기술보급의 거점답게 훌륭히 꾸리고 그를 통한 과학기술보급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기자: 새해신년사를 받아안은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심정이 남다르리라고 본다.

김룡: 그렇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국가적으로 인적재교육과 과학기술발전사업을 목적이향성있게 추진하며 그에 대한 투자를 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안의 일꾼들과 전체 과학자, 기술자들은 새해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을 받들고 뜻깊은 올해에 과학기술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갈 결의에 넘쳐있다.

과학기술과 자력갱생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다.

인민경제의 주제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는

데서 우리가 믿을것은 자기의 힘과 기술이다.

우리는 올해에 제34차 전국과학기술총련맹을 비롯한 과학기술전시회, 발표회, 기술경승 등 다양한 사업을 조직진행하는 것과 함께 과학자, 기술자들을 적극 불러일으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더욱 원만히 풀어나가겠다.



인재육성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한겨울의 추위는 기승을 부려도

추운 겨울날씨가 한창이다. 매향 추위가 엄습하는 계절이지만 평양의 곳곳에 멋지게 꾸러진 공원들은 런던 겨울방학을 맞이할 수많은 어린이들과 학생들로 흥성이고있다. 우리가 찾은 하신공원도 역시 그러하였다.

로라스케트장은 유치원과 마로부터 고급중학교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앞을 다투어 찾고있다. 초만원 을 이루고있었다. 주위를 달리는것만으로는 성차지 않아 기교장을 신나게 오르고 내리며 갖가지 재주를 부리는 학생소년

들과 어린이들의 모습은 마치도 능란한 교예사를 방불케 했다. 기교장에서 높은급《선수》들이 재주를 부릴 때 기본주로는 금방 로라스케트를 신고 뒤쪽거리며 동무들의 손을 잡고 배우는 학생들의 모습도 볼수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도 이제 좀 있으면 자기들도 주로를 쟁쟁 달리며 기교를 부릴수 있다는 자신심이 어려있었다. 배구장과 통구장에서는 고급중학교 학생들의 경기가 자못 치열하게 벌어지고있었다.

전문선수들 못지 않게 처냉기와 반기, 막기동작들을 수행하고 다양한 전술에 의한 공격조직으로 상대방을 수세에 몰아넣는 배구경기장도 그러했고 능란한 배물기와 연락으로 득점을 성공시키는 통구장에서도 겨울의 추위쯤은 아랑곳없었다.



올해의 절기

옛날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여오던 력서는 달의 모습변화에 기초하여 만든 음력(태음력)이었는데 음력은 계절의 변화를 잘 반영하지 못한 부족점을 가지고있다. 때문에 음력에 태양의 년주운동을 반영한 24절기를 설정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동지로 부터 시작하여 해길을 12등분한 절을 중기라고 하고 중기와 중기사이를 절기라고 불렀으며 여기에 계절에 맞는 적합한 이름을 붙이고 12개의 중기와 12개의 절기를 합하여 24절기라고 불렀다. 24절기에는 립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곡우, 립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립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립동, 소설, 대설, 동지, 소한, 대한 이 있다. 올해의 절기는 다음과 같다.

소한 1.6.	대한 1.20.
립춘 2.4.	우수 2.19.
경칩 3.6.	춘분 3.21.
청명 4.5.	곡우 4.20.
립하 5.6.	소만 5.21.
망종 6.6.	하지 6.22.
소서 7.7.	대서 7.23.
립추 8.8.	처서 8.23.
백로 9.8.	추분 9.23.
한로 10.8.	상강 10.24.
립동 11.8.	소설 11.22.
대설 12.7.	동지 12.22.

본사기자

천하절경 금강산에 겨울이 왔다. 겨울이든 온 산이 눈꽃과 얼음기둥으로 덮여 《개골산》이라 불리우는 조선의 명산—금강산! 하얗게 내린 눈은 천하를 은빛세계로 물들이면서 금강산의 산악과 계곡에 아름다움을 더해주고있다. 웅장한 재래를 뿔뿔이 독특한 미를 보여주는 겨울의 구룡폭포의 모습은 볼수록

장판이다. 백설을 이고있는 금강산의 절경과 어울려 그 모습 더더욱 두드러져보이는 한겨울의 구룡폭포는 아홉마리의 룡이 타래를 치는듯싶고 하늘을 떠이고있는 하나의 거대한 흰 기둥같이 보여 그 신비감을 더해주고있다. 겨울의 태양이 밝게 비치

이뿐이 아니었다. 바드민턴경기 에 열을 올리는 학생들과 립스판, 종합유회기재들에서 좋아라 뛰어노는 어린이들의 모습도 이제몸체 안겨왔고 어머니들과 함께 한살, 두살잡이 어린이들의 모습도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어머니들은 공원들마다에 갖 걸음마를 맨 어린이들이 리용할수 있는 그네까지 갖추어져있어 해빛쬐이기도 할겸 그네도 태울겸 자주 공원에 나오곤 한다고 웃으며 이야기하였다.

한겨울의 추위는 기승을 부리건만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에 동경당도 머리를 숙인듯 한겨울의 공원은 후덜덜한 하였다. 본사기자 리철민



사화

개성고추장 (1)

글 전철호, 그림 리성일

조선봉건왕조 중엽 송도라고도 불리우는 개성류수부의 송악산기슭에 사는 김씨성을 가진 백성집에서는 청제비가 날아들자 경사가 났다. 한것은 일곱대제인지 여섯대제라고 하던지 하여간 간들간들 외독신으로 대를 이어오던 이 집안에 년년생으로 다섯번째자식을 그것도 꼬투리를 달고나온 아들자식을 또 보게 된것이었다. 칠순이 난 이 집안의 어른 한테는 중손자요 친할이 난 그의 아들한테는 손자인데 중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아들 다섯, 이렇게 네대가 한지붕아래서 한가마를 먹으니 받는 친척이 없어 외롭다던 김씨집이 오늘도 열한식구라는 큰 식솔이 되어 벽작벽작 웃고 떠들며 이제 사람사는 재미라며 자랑하는것이였다. 잠시 이 집안을 뜯어보면 재력이란 말을 번질수조차 없이 그날 벌어 그날 먹고사는 구차한 살림이지만 언젠 한번의 상해 놀아친 언성이 밖으로 새어나온적이 없고 웃어뜯은 아랫사람을 야기하고 아랫사람은 웃어뜯을 공경하기를 12달이 하루같이 온 동네의 부러움을 모으고있었다. 이런 화려한 집안에 열한번째의 새 식솔을 맞이했으니 이제 큰 경사가 아니겠

니 집안에서 동동 떠받들리게 되였다. 장씨는 일출살물 집살림만 잘하는것이 아니고 결단도 남정네만 못지 않았다. 시집온지 한달만에 뜨뜻한 안방에 끓은것들이 든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시할아버지의 마음을 끝내 움켜져 시부모님을 모시고 저희 부부는 웃방에 든것만 보아도 장씨의 생각하는 품이나 결단을 능히 엿볼수가 있는것이였다. 장씨가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니 자연 그 자식들도 집안의 사랑을 받아 첫째, 둘째아들들은 안방에서, 셋째, 넷째는 사랑방에서 날마다 웃음꽃을 피운다. 그러니 장씨가 이제 더 무엇을 바라겠는가. 하지만 장씨는 늘 고심하고있는것이 한가지 있었는데 누우도 아직은 알수가 없는 것이였다. 누가 말하기를 꽃핀것을 엇그제 보았는데 벌써 열매가 맺혔다고 하더니 어느새 여름이 가고 가을도 가고 겨울이 와서 하늘에서 흰눈이 펄펄 내리고있었다. 이날 저녁도 장씨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열한 식솔을 안고 누워있으니 내가 설것이로 소문이 날만 했다. 게다가 시집온지 10년도 못되어 다섯아들까지 쳐 낳아주었으

《응, 앞집 천식이 하는 말이 재령에선 버가들이 갈나자 갈밭을 일구어 눈을 푼다고 하오. 거기엔 무연한 갈밭인데 푼을 쌓고 물을 끌어대면 그야말로 기막힌 옥담이려나우. 그래서인지 쌀루품만 팔아도 며칠 먹을 쌀을 준대. 내 올해 품팔이를 변변히 못했는데 재령 가서 벌지 못한 봉창을 할가 하오.》

《그대야 자기는 사실 안해에게 없혀산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집에서는 마땅한 일감이 없어 지계를 지고 행상군들의 소금집같은 걸 날라다주기도 하고, 부자집들에 가서 나무도 패우도 내고, 송구이막에 가서 참나무를 베어주고, 모내기철엔 시골에 나가 모도 내주고 논길도 매고, 가을철엔 조라든가 벼베기를 해주고 품값을 받아오는게 겨우 저 하나 현을 식을 해먹을 정도고 그나마 날마다 일거리가 차체지는것이 아니어서 빈손으로 돌아올 때가 더 많다.》

《여보, 저도 한마디 하려나이다. 제가 이 집문턱을 넘어선지도 여든 10여년, 그새 시부모님들도 그렇지만 조부모님들은 더 많이 늙으셨나이다. 시할아버님이 자주 병석에 누우시는걸 보면 가슴이 아프다 못해... 어른들이 앓지 않고 오래오래 사시도록 공대를 잘하자면 뒤니뒤니 콩대 음식대접을 잘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처럼 날마다 같은 것같은 반찬 한두가지를 드러서는 용도가 못되는줄 아니이다.》



《여보, 내 한마디 하라오?》 한참만에 남편 근달은 피곤에 물린 안해를 인차 잠들수 없게 한것이 미안하여 겨우 입을 열었다. 《어서 말씀하시와오.》 《다른건 아니고 인차 재령에 갈가 하오.》 《재령에요?》

민족적공지가 넘쳐나는 새해의 달력들

희망찬 새해 주제108(2019)년을 맞으며 공화국에서는 민족성이 넘쳐나는 여러 종의 달력들을 출판하였다. 이번엔 평양출판사에서 아름다운 색깔과 독특한 무늬, 기발한 형태로 하여 세계적으로 이름난 고려청자를 소개한 달력을 만들어 내놓았다.

섬세한 형상으로 청신함을 더해주는 청자진사야이, 포도부늬박이조분박모양주전자와 받치개, 청자오리, 나비, 버들부늬박이병도 고려하지만 청자참대새김부늬병과 청자학, 구름부늬박이병 등을 소개한 달력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부풀게 한다. 이와 함께 백두산 향도봉

의 서리꽃과 불이 올르는 소백수, 해금강의 파도, 박연의 가을, 단풍은 삼부연꽃, 구름에 싸인 구월산의 삼명제봉과 같이 삼천리금수강산으로 자랑높은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은 달력을 내놓았다. 더욱 이채를 띠는것은 녀성들의 기호와 미감에 맞는 금강산화장품들을 소개한 달력이다.

조선의 특산 개성고려인삼을 주원료로 한 인삼화장품, 비타민E의 1000배나 되는 항산화활성을 가진 나노셀렌화장품, 자연의 향취 그대로 어러오는 보습영양화장품 등 여러가지 기능성화장품들, 3.8혁명추위를 맞은 녀성들과 사랑하는 어머니들을 위한 화장품일식

등 금강산화장품들을 소개한 달력은 녀성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이밖에 외국문출판사와 조선로리협회는 모양과 색깔, 맛과 향기가 독특한 여러 로리들을 소개한 달력들을 만들어 내놓았다. 백과사전출판사에서 내놓은 세계5대건강식품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있는 우리 민족의 자랑인 김치를 다종다양하게 소개한 달력도 사람들속에서 인기를 모으고있다.

한창두장 새해의 달력을 번져갈 때마다 해내의동포들은 민족의 공지와 자부심에 넘쳐 올해에도 통일애국의 길에 한마음 다 바쳐갈 마음속결의를 가다듬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어느 한 나라에서 18~32살 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상상력을 조사하는 과정에 인류의 정신활동과 수명사이의 관련성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그에 기초하여 젊은 사람들이 머리를 극력 많이 쓰고 신체단련을 많이 하며 기쁨기가 많은 음식을

적게 먹을것을 권고하였다. 연구과정에 발견된데 의하면 젊었을 때 문제고찰에 대한 적극성이 부족하고 사유가 간단한 사람들은 평균수명이 81.7살이었지만 사

고활동이 활발했던 사람들은 88.5살에 달하였다고 한다. 또한 전자의 경우 후자에 비해 조로성치매증에 걸릴 확률이 10배나 높다. 연구자들은 《내뇌는 사람의 수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주제 108(2019)년 새해우표가 나왔다

주제108(2019)년 새해를 맞으며 국가우표발행국에서 우표를 발행하였다. 우표는 공화국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새형의 케도전차기 시대의 거리를 달리는 모습을 배경으로 새해를 즐겁게 맞고있는 어느 한 가정의 모습을 함박눈이 내리는 설경풍속에 형성

하고있다. 우표는 시대를 생생 달리는 멋진 케도전차를 가리키는 아이들과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아바, 엄마들이 만들어낸 새형의 케도전차라고 이야기해주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통하여 제힘을 믿고 자기 손으로 행복을 가

꾸나갈 때 더 밝은 미래가 온다는것을 생활적화폭으로 보여주고있다. 이와 함께 우표에는 《새해를 축하합니다》, 《주제108(2019)》라는 글이 새겨져있다. 본사기자



새해의 덕담

우리 민족의 오랜 풍속에 새해하러 다니는 길에 친구들을 만나면 새해를 축하하고 새해에 일이 잘되기를 축원하였는데 이때 서로 주고받는 말을 《덕담》이라고 하였다. 덕담은 친구들사이에서 《새해에는 아들을 보게나.》, 《새해에는 소년 성취하기를 바라네.》 등과 같은 말로 오갔다. 웃사람이 아래사람의 새해를 받을 때에는 《올해에도 가족의 화목을 바라네.》,

《새해에는 장가들어 행복하게 살게나.》라고 하였다. 덕담을 주고받는 풍습은 화목하게 살기를 좋아하는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이었다. 오늘에 와서 덕담은 공화국의 인민들속에서 서로의 사업과 생활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에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등의 친근한 인사말을 나누는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사기자

《옥편》이 장검인줄 알고

한자의 운에 밝은 한 선비가 있었다. 그는 집의 하인들과 말하는것도 늘 운에 맞추어하였고 하인들이 틀리게 말하면 바로잡아주곤 하였다. 어느날 밤 누워서 달려와 《도적이 들어왔소이다.》고 알렸는데 너무 바빠 운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였다.

그러자 선비는 《평성운자도적이냐 거성운자도적이냐? 빨리 내 《옥편》을 가져오너라!》하고 소리쳤다. 이 소리를 들은 도적은 《옥편》을 그 어떤 장검과 같은 무서운 정기인줄 알고 출항망을 놓았다. ※ 평성, 거성—사성(네가지 소리가락)의 일종